



## 석기시대는 성경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나요?

진화론적인 인류의 시작을 말할 때 보통 석기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시대 등으로 나눈다. 과연 이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최근에 진화론적 고고학자들은 석기시대를 구석기(2백만년- 8만년 전), 중석기(8백만년- 3만년 전), 신석기(3만년- 1만년 전)로 구분한다. 이 연대들은 진화론자들이 구분하는 빙하시대에 해당되는 시대다.

여기서 빙하시대를 진화론적 접근에서 벗어나 성경적으로 이해한 사람이라면 석기시대 연대 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임을 통찰할 수 있을 것이다. 창조과학자들은 빙하시대가 길어도 500 년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여긴다. 이 시기는 성경의 족보로 보자면 벨렉에서 이삭까지 이어지는 기간이다. 즉 성경적 역사가 사실임을 이해한다면 석기시대라는 긴 기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빙하시대에 관하여 더 많은 정보를 원하는 분은 빙하시대이야기(이재만, 최우성, 두란노, 2011)나 2010년도 Creation Truth를 참고하기 바란다.

진화론자들은 구석기는 타제석기로서 돌을 깨서 다듬는 시기며, 신석기는 마제석기로 구

분하며 돌을 갈아서 다듬었던 시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구석기와 신석기 유물이 한 장소에서 그것도 구석기 유물은 아래에, 신석기 유물은 그 위에 같은 장소에서 발견된 경우가 있을까? 두 가지 유물 모두 지표에서 아주 드물게 발견된 것들이다. 더욱이 석기시대 유물은 참으로 드물게 발견된다. 그러므로 이런 도구가 보편적으로 사용했던 도구인지 아닌지도 쉽게 판단할 수 없다. 어떤 구석기시대의 것들은 유물이라고 하기에는 민망한 것들도 있다.

또한 석기시대 유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얼마나 오래되었다고 숫자가 기록되어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추적도 불가능하다. 또한 과학자들이 아직까지 그들의 나이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기술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숫자(나이)는 빙하시대가 오래 전에 일어났으며 아주 길었다는 진화론적 패러다임의 표현일 뿐이다. 단지 모양만 보고 깨서 다듬는 것이 더 원시적이고 갈아서 다듬는 것이 더 발달되었다는 생각과 수십억 년이라는 긴 지구 연대의 합작품이다. 그러나 과연 깨어서 다듬는 것과 갈아서 다듬는 것이 어떤 것이 더 발달된 기술일까? 돌의 모양을 만드는데 어느 것이 더 어려운지 예술가들에게 물어보라! 많은 사람들이 깨는 것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고고학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학에 대한 속성이 도움이 된다. 역사학이란 과거 문헌을 통해 당시 상황을 밝히고자 하는 학문 영역이다. 이는 그 역사가 오래된 것일수록 자료가 부족하다. 이는 과거로 갈수록 당시 인구도 적었을 뿐 아니라 자료가 사라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분서갱유와 같은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역사 기록 손실 과정들이 있다. 분서갱유란 기록된 과거의 문서와 학자들을 없애려는 시도로서 대부분의 왕권 확립 과정에서 발생해 왔다. 중국을 통일했던 진시황제의 분서갱유가 가장 유명하지만, 다른 모든 나라에서도 왕권 확립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분서갱유가 뒤따랐다.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이다. 이 두 책은 삼국시대가 아니라 모두 고려시대에 쓰여진 책이다. 그것도 고려시대가 시작된 지 200년이 훨씬 지난 뒤에 쓰여졌다. 즉 두 저자는 모두 삼국시대는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고려시대 이전의 책들은 모두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어쨌든 고려시대 이전의 역사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이 두 책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두 책이 고조선부터 삼국시대 역사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만약 오늘날 어떤 나라에 기존 문서가 모두 사라졌다고 하자. 그리고 2-300년 뒤에 어떤 사람이 지금 시대를 묘사한다고 하자. 과연 얼마나 정확히 묘사할 수 있을까?

언젠가 창조과학탐사에 역사학 전공자가 참석한 적이 있었다. 이분이 던진 한마디는 주목할만했다. “역사학자들은 고문서에 기록된 짧은 한 줄을 갖고 두꺼

운 논문을 써야 합니다.” 즉 역사학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를 지적한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그 고문서를 해석한 논문을 다시 재해석하고 인용하고, 참고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즉 자신이 갖고 있는 몇 줄의 기록과 기존 해석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다는 의미다. 다른 분야보다도 사실여부에 대하여 역사학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큰 것도 바로 이 이유에서다. 그만큼 적은 자료만을 가지고 유추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편견에 크게 좌우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의 인기 사극 작가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며 웃음이 나왔던 적이 있다. “내가 쓴 사극 모두 사료가 부족했다. 오히려 사료가 부족해서 상상력에 구애를 받지 않는 인물이 더 매력을 느낀다.” 물론 이 작가는 역사학자는 아니지만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야기를 꾸미는 것이 쉽지 않음을 반증하는 말이다. 글로 기록된 과거를 연구하는 역사학도 이렇게 어려운데 단지 유물로만 과거를 밝히려려고 하는 고고학은 어떨까? 역사학과 비교할 수 없이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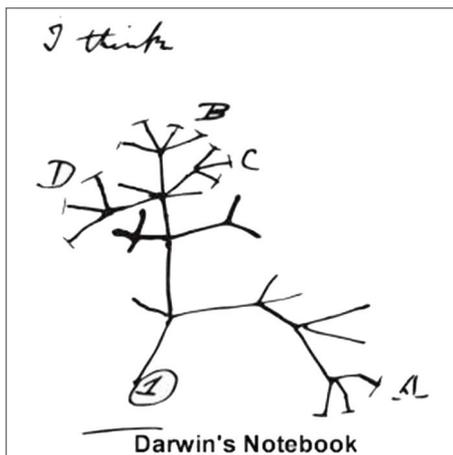
과연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 사람들이 지금보다 훨씬 미개했는지 생각해보자. 예전 사람들은 컴퓨터도 만들지 못하였으므로 우리보다 미개했을까? 오늘날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만약 오늘날 홍수심판과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여덟 명만이 구원받았다고 하자. 과연 이들이 컴퓨터를 만들 수 있을까? 사용하는 것과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 아마 작은 나사못 하나도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문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아마 컴퓨터를 만들기도 전에 그 세대는 모두 죽고 다음 세대가 시작될지도 모른다. “지식”과 “기술”은 꼭 같은 것이 아니다. 기술은 앞 단계가 다음 세대로 제대로 전수되어야만 가능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이 그냥 나왔을까? 앞 단계를 거쳐 나온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자면, 그 이전에 셀폰, 그 이전에 무선전화기, 그 이전에 버튼식 유선전화기, 다이알식 전화기, 교환수에 의한 전화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기술이 추가되어 지금의 스마트폰까지 온 것이다. 어떤 면에서 지금의 고도의 기술들은 조상들의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것을 모르고 과거사람들을 미개하다고 한다면 이는 참으로 교만한 현대인이라 할 수 있다.

성경으로 돌아가보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것과 같이 홍수심판 이전에는 900살 이상 살았었다. 이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식의 축적이 지금과는 사뭇 달랐음을 암시한다. 지식의 축적도 빠르고 기술의 단절도 적었음을 말한다. 노아는 홍수 이전의 그 기술로 방주를 지었을 것이다. 그러나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기술의 단절로 말미암아 거의 모든 생활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야 했을 것이다.

인류 역사 동안에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듯이 그런 미개한 석기시대는 없었다. 진화론적 패러다임과 이것만을 주입 받았던 우리의 마음에만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에 석기를 사용했던 기간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진화론자들이 상상하듯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으며, 미개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도 아니다. 단지 홍수 이후 이어지는 글은 13쪽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린네와 레이

### 종, 속, 과, 목, 강, 문, 계!

린네(Carl Linnaeus, 1707-1778)가 이 분류체계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그는 생물분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다.

린네의 획기적인 업적은 생물의 이름을 한 개가 아니라 두 개를 연이어 사용하는 이명법(binomial nomenclature)을 확립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사람의 학명은 *Homo sapiens*라고 속(genus)이름 Homo와 종(species)이름 sapiens를 이태릭 체로 함께 쓰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린네는 동물 4,000종과 식물 5,000종 등 총 9,000여 종의 동식물들을 구분하였다.

린네는 종(species)과 속(genus) 이외에도 목(order), 강(class), 그리고 계(kingdom)의 상위의 분류체계를 두었다. 그러나 후에 다른 과학자들은 이 사이에 과(family)와 문(phylum)을 더 넣어 현재 일반적인 교과서에 들어 있는 생물의 체계(종-속-과-목-강-문-계)를 만들었다. 이 체계는 진화론을 한 눈에 보여주는 생명 나무(tree of life)처럼 보인다(그림). 그러나 린네 자신은 진화론을 강력하게 반대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근거로 이 분류체계가 나온 것으로 믿었다.

린네는 성경의 '종류대로(kind, 히브리어로 min)'라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종류대로'란 교배의 한계를 의미한다. 생물들은 '종류대로' 창조 되었고(창세기 1장), 방주에 '종류대로' 실렸는데 그 이유는 씨를 보존하기

위함이었으므로 (창세기 7:3, 8:17) '종류대로'가 교배의 한계인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린네가 모든 생물들이 종-속-목-강-계의 체계 안에서 서로 생식적인 연관을 갖는다거나 조상과 후손의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종류대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모든 생물은 한 종류인 셈이다.

린네 이전에도 생물 분류학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레이(John Ray, 1627-1705)를 들 수 있다. 그는 18,600점이나 되는 식물들을 연구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식물들에게 부여하신 질서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분류체계를 연구하였다. 그는 씨앗 속에 잎이 한 개인 것과 두 개인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것이 식물을 분류하는 한 가지 기준이 되었다.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외떡잎 식물과 쌍떡잎 식물이다.

레이는 종(species)이란 단어를 맨 처음 사용한 과학자였다. 그의 가장 유명한 책 "식물의 역사"(Historia plantarum, 1686)에서 그는 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각 개체나 종에서 무슨 변이가 일어나든지, 그것이 한 개의 씨 혹은 한 개체의 식물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들은 우연한 변이일 뿐 그 식물을 다른 종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아니다. ... 동물들도 마찬가지다. 독특한 각 종들은 영원히 특별하게 보존된다; 한 종은 결코 다른 씨에서 튀어나오지 않으며 역으로도 마찬가지다." 현대 진화론자들의 오류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말이다.

현대 진화론자들은, 돌연변이와 자연선택으로 새로운 종(species)이 탄생 되는데 이것을 소진화(micro-evolution)라고 부르며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진화의 증거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 변화는 변이(variation)일 뿐 소진화가 아니다. 새로운 유전정보가 전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소진화를 통해 진짜 진화인 대진화(macro-evolution)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결론은 이미 1980년 시카고의 필드 박물관에서 모였던 학회에서 진화론자들 스스로 내린 결론이다.

레이가 보는 세상에는 창조자 하나님의 증거들로 가득하였다. 그는 "창조 작품들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지혜(1691)"란 책을 썼다. 이 책은 하나님의 창조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쓴 것인데, 자신을 뽐내며 복잡하게 쓴 다른 학자들과는 달리, 단순하고 명료하여 설득력이 있었다. 레이는 이 밖에도 많은 과학책들을 썼다. 그 책들에는 한결같은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강조되어 있는 것이다. 레이에게 다음의 말씀은 사실이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로마서 1:20).



최우성 박사  
생리학



## 창조과학탐사

지난 7, 8월은 창조과학탐사로 가득 찼던 한 달입니다. 교회 뿐 아니라, 학교와 선교단체에서도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사이 사이에 세미나도 이어졌습니다. 짝 찬 일정 속에서 창조과학선교회 강사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기도해주십시오.

### 포모나 인랜드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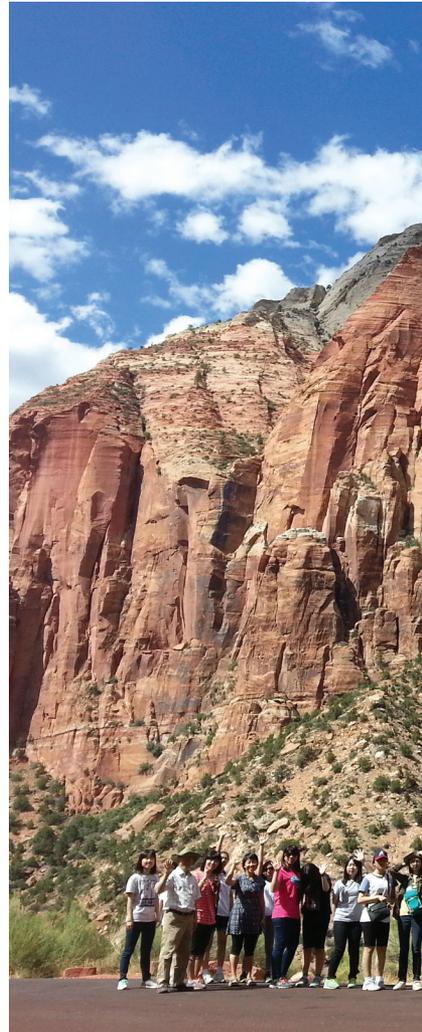
8월 28-31일 포모나 인랜드교회(담임목사 박신철)와 창조과학탐사를 가졌습니다. 작년에는 사흘간 일정이었는데, 올해 나홀로 브라이스와 자이언 캐년까지 돌아 보았습니다. 포모나 인랜드교회는 창조과학선교회에게 오랫동안 기도와 후원을 주셨습니다. 늘 감사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계획과 올해 처음 선보이는 Anza Borrego State Park 창조탐사와 내년 빙하시대탐사도 계획하셨습니다.

### 일산 산성교회

8월 4-10일 1주일간 한국의 일산 산성교회(담임목사 유희숙)에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두드러진 것은 젊은 청년층이 많이 참석하신 것입니다. 일 년동안 준비하셨습니다. 청년들은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 창조과학 도서를 읽고 왔으며 기도도 많이 하고 온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질문은 한 주 동안 전체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창조과학탐사에 보내고 싶은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동산고등학교

7월 18-21일 안산동산고등학교(교장 홍원용)에서 참가했습니다.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올해는 지난 해보다 인원이 70여명으로 증가해서 버스 두 대로 진행했습니다. 진화론 밖에는 배우지 않는 현 교과 과정의 현실에서 과학적 증거



들을 통해서 성경의 역사로 돌아온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진화론이 얼마나 모순되고 증거가 없는지 확인하며, 성경적 역사의 증거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간증 가운데 이 창조과학탐사를 갖기 전과 후의 자신의 변화는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밀알선교단

7월 22-25일 장애인 선교 단체인 밀알선교단(총재: 이재서 목사)에서 창조과학탐사에 참석했습니다. 나흘 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사실을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의 대부분이 목사님이셨는데, 밀알선교단과 각 교회에 적용에 대한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산동산고등학교



포모나 인랜드교회

## OMA(Onnuri Mission Alliance)

7월 28-30일 OMA에서 EM의 창조과학탐사가 있었습니다. OMA는 미주에 있는 온누리교회 비전교회를 의미합니다. 미주의 각 비전교회에서 2세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지원을 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어권에서 다음세대인 2세들에게 성경이 사실됨이 전달되는 귀한 열매입니다. OMA에서는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후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인도는 EM 전문강사이신 김선욱 박사께서 해주셨습니다.

## 창조과학세미나

7월 25-26일 은혜의강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홍종걸), 7월 26일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청년부 수련회, LA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이정엽), 어바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혁빈)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목사: 남성수)에서는 8월 6일, 13일, 27일 그리고 9월 7일 각 수요일에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청해 교회에 감사드리며 교회마다 성경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 ANC온누리 창조과학학교

집중 세미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세 번째 창조과학학교가 9월 13일(토), 20일(토) 2일간 오전 9:00부터 오후 4:30까지 ANC 온누리교회(담임목사: 유진소)에서 열립니다.

인류의 기원, 종의 기원, 노아홍수, 바벨탑 사건과 빙하시대 수명, 인종 그리고 공룡, 동성애의 문제, 지구나이와 패러다임, 우주의 기원, 창세기 1장과 진화의 반대 등 과학 시대에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전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면 아무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의: 정명호 전도사(818-388-4954)/이중재 집사(323-360-3204)

## 주님의영광교회 창조과학 정기 세미나

주님의영광교회(담임목사: 신승훈) 정기 세미나가 9월 2일-28일까지 매 주일 1:00에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 주제는 우주의 기원, 생명의 기원과 UFO, 지구의 나이, 창세기 1장으로 이재만 선교사와 최우성 박사가 강의 합니다.

## 제 6기 IT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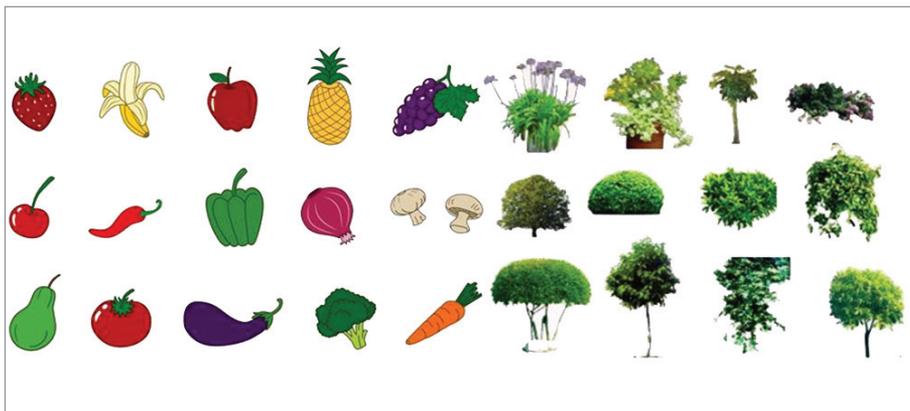
제 6기 ITCM (Intensive Training for Creation Ministry) 프로그램이 12월 22일부터 2015년 2월 14일까지 8 주간 진행 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은 참가자들에게 창조과학 지식의 전달을 통해 성경적 창조론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고, 절대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와 증거들을 배우도록 합니다. 참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무신론적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지식과 증거들을 습득하도록 성경-과학-열매 이 세 부분의 균형 잡힌 지식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성경공부, 창조과학 도서 읽기, 창조과학 탐사여행, 세미나 등을 통해 성경적인 세계관을 형성하도록 훈련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창조과학선교회 웹사이트 “훈련프로그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창조과학 전문 사역자도 배출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홍보와 추천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식물

창조주간 제 3일째 창조된 식물들은 동물들과 사람에게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창세기 1:29-30)이 가장 중요한 존재 목적이다.

생물들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에너지는 태양에서 온다. 그러나 광합성을 하는 식물들과 달리, 동물들이나 사람은 그 에너지 입자를 직접 포획하여 생명을 유지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 하지만 식물들은 광합성이라는 놀라운 과정을 통해 빛 에너지를 물과 이산화탄소에 고정하여 당(탄수화물)을 합성한다. 탄수화물은 동물들과 사람에게 공급되는 에너지의 근간이며 생명체의 구조를 유지하는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광합성 과정에서는 물이 분해 되어 부산물인 산소를 만들어 낸다. 그런데 이 산소는 동물들과 사람들이 섭취한 탄수화물에서 최대의 에너지를 끌어 낼 때 반드시 필요한 재료가 된다. 격렬한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처럼 산소가 부족하면 불완전 산화가 되어 똑같은 양의 탄수화물에서 극소량의 에너지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산소가 충분하면 탄수화물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사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ATP)로 전환되고 다시 광합성의 원료인 이산화탄소와 물이 만들어 진다.

하나님은 탄수화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시스템을 디자인하셨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생명체 안에서 탄수화물과 산소가 소비된 결과는 다시 광합성의 원료인 물과 이산화탄소가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다. 물과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지만 이것들이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시스템이다. 우리가 맛있는 사과를 한 입 깨무는 것은 결국 태양 에너지를 먹는 것이다. 완전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한 시스템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단 하나

의 원자도 버려지지 않고 최고의 효율로 사용되도록 하시는 완벽하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창조자임에 틀림 없다.

하나님은 창조 셋째 날,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셨고 말씀 그대로 되었다(창 1:11). 생명체는 이런 창조의 기적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각종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성경은 ‘종류대로’라는 단서를 붙였다. 종류대로(after their kind)란 말은 교배의 한계가 있다는 말이므로, 진화론의 주장과 정 반대로, 모든 종류의 식물들이 동시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관찰된 사실은 창조의 두 가지 속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하나는 콩은 처음부터 콩이고 팥은 처음부터 팥이므로 진화가 사실이 아니고 창조가 사실이란 말이다. 두 번째는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다. 콩과 팥은 심고 거둬들이나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등 아주 비슷한 식물이지만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것으로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성경 말씀과 일치한다. 콩 꽃의 암술은 오직 콩의 수술에만 반응하여 열매를 맺고 팥의 암술은 팥의 수술에만 반응하여 팥 열매를 맺는다. 한 생명체에서 시작해서 모든 식물과 동물로 진화 되었다는 진화는 관찰된 적이 없는 믿음이다. ‘종류대로’ 창조 되었다는 주장이 관찰된 사실 즉 과학이다.

깜짝 놀랄 말이지만 식물들은 생명체가 아니다. 사실 식물과 동물은 격이 같은 물체가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식물들은 동물들과 사람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 존재하는 초록색 물건들(green things)일 뿐이다. 물론 무생물에 없는 목적물이 있어 스스로 질서를 증가시키며 성장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것을 만든이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고 그것을 만든이가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된다. 그런데 그 창조자는 식물들을 생명(life)체라고 하지 않는다. 미생물도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것(thing)이다. 창조자는 피(blood)를 가진 것들에게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창 1:21, 24; 레 17:11).

식물들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 만약 식물이 생명체라면 창조 된 세상은 고통과 죽음을 전제한 시스템이고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을 리가 없다. 또, 만약 식물이나 미생물들에게 죽음이 있다고 가정하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도 죽음이 있었다는 말이 된다. 그렇다면,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 왔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다(롬 5:12)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는 아무 근거가 없게 된다.

이 초록색 식물(食物)을 종류대로 창조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식탁 기도에도 언급되기를 바란다.

최우성/생리학박사



## 공룡-새 *Dino-Bird*

스티븐 체르카스 (Stephen Czerkas)는 공룡을 연구하는 고생물학자다. 깃털 달린 공룡에 대한 그의 첫 주장이 최근 들어 반전 되었음이 명백해졌다. 그가 깃털 달린 공룡으로 알려졌었던 화석을 재검토 한 결과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다.

조류 화석 전문가인 노스 캐롤라이나 대학 (University of North Carolina)의 알렌 페두샤 (Alan Feduccia)와의 최근 연구에서, 체르카스는 발전된 삼차원 현미경과 고해상 사진 기술로 스칸소리옵테릭스 (Scansoriopteryx: 역자 주, 날개 달린 기어다니는 공룡)를 복원했는데, 이 사진들은 손목 뼈의 특징과 깃털, 그리고 뒷다리의 모습을 담고 있다. 올해 이 두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는 조류학 저널 (Journal of Ornithology)에 실렸다.

1999년에 미국 지리학 협회 (the National Geographic Society)는 시조새 (Archaeopteryx)라고 불리는 반이 새이고 반은 공룡인 화석을 성급히 발표하면서 여러 논란을 일으켰다. 체르카스와 유타주 블랜딩 시 (Blanding, Utah)의 공룡 박물관은 중국에서 발견된 그 화석 표본을 1999년 초 애리조나주 투산 시 (Tucson, Arizona)에서 열리는 겐쇼 (gem show: 보석과 광물 쇼)에서 8만 불에 구입했다. 미국 지리학 협회는 과학자들이 그 표본을 상세히 검토하기도 전에 “깃털 달린 공룡”이라고 성급히 발표했다. 그러나 그 표본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티븐 체르카스는 새와 유사한 공룡인 이 시조새 표본을 구매하고 홍보하는데 직접적으로 관여되어 일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는 인위적으로 조합된 새의 일부분과 공룡의 일부분을 구입했던 것이다! 곧바로 저자이자 연구원인 조나단 웰스 (Jonathan Wells)는 그 표본을 “필트다운 새”라고 이름을 표기했다. 이 이름은 원숭이와 인간의 뼈를 조합해서 거깃으로 만들어서 유명해졌던 필트다운 인 (Piltdown Man) 두개골 이

름을 따라 지은 이름이다.

2002년 체르카스와 그의 아내는 “깃털 달린 공룡과 비행생물의 기원” (Feathered Dinosaurs and the Origin of Flight)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했는데, 이 책에서 그들은 스카소리옵테릭스를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관점으로 다루었다. 시조새가 진짜 화석이라고 했던 그의 주장은 그것이 사기였던 것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바뀌었고 스칸 소리옵테릭스가 공룡이라는 주장도 바뀌었다.

올해 그는 과학 뉴스 매체인 유레카트 (Eurekalert)에 “공룡이 아닌 새인 스칸소리옵테릭스의 연구는 공룡과 새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재평가하도록 이끌었다. 과학자들은 결국 새로부터 공룡을 분리시키는 문을 여는 열쇠를 갖게 됐다.” 결국 그 화석은 단지 또 다른 종류의 새이며 그들이 처음에 주장했던 것과 같은 새와 공룡의 혼합체 같은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새와 공룡을 구분하는 것의 열쇠가 깃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오늘날 새만 깃털을 갖고 있다. 깃털이 아니더라도, 새만의 특징적인 뼈의 해부학은 파충류와 새를 구분하기에 충분하다. 이 멸종된 새의 독특한 해부학은 다섯째 날 창조된 순간부터 새는 언제나 새였고, 공룡은 언제나 공룡이었다는 성경의 설명에 잘 맞는다. 그리고 새의 표본이 진흙 속에 빠진 속도록 매몰되었고 화석화되었다는 그 사실도 방주에 타지 못한 모든 호흡하며 땅에 거하는 생물들이 죽게 되었다고 말하는 성경의 설명에 잘 부합된다.

스칸소리옵테릭스가 명백한 새의 몸의 형태와 깃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그것을 공룡이라고 주장하려 했다는 사실은 화석 자체보다도 그들의 “과학”과 그 과학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더 말해준다.

Brian Thomas, M.S., ICR 작가

번역: 조희천 (지구물리학박사과정)

### 3쪽에서 이어지는 글

와 바벨탑 사건에 수반된 빙하시대의 혼돈 가운데 앞 단계의 기술의 단절로 인해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기간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과거를 잃어왔다.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을 남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처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므로 처음부터 말을 했었는지, 죄 때문에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어리석게 되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확증하고 싶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사실을 전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이는 죄악에 젖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 기록이 바로 우리 손에 있는 성경이 아닌가!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나이다”(시 118:89, 90)

# 창조과학 탐사

7/22-24, 2013

## 간증

‘사실을 믿는다는 것’ 아니 ‘사실이니까 믿는 것’ 이 말에 대해 새삼 감동 벅찬 환희를 느낍니다. 지금도 계속 신학을 공부 하는데 어떤 큰 열정이 가슴에 박혀있습니다. - 박정옥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첫째 날 층 셋째 날 층, 노아의 홍수로 생긴 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으로 신앙을 잃어가게 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 한치완 선교사 <에클레시아 순복음교회>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생명체가 목적을 가지고 지음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태영 <파로로스 순복음 교회>

이번 창조과학탐사여행을 통해 성서의 진리가 현대과학보다 우위에 있음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나눌 때 창조과학이 함께 이해 된다면 훨씬 능력 있는 복음 전도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 우원식 선교사 <민다나오 순복음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와 그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창조론’의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오인경 사모 <민다나오 순복음 교회>

세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매우 오래 전 역사처럼 느껴지던 구약의 역사가 가까이 느껴지면서 신비한 느낌이 드네요. 주변 친구들과 귀하게 나누겠습니다. - 진희연 <두바이 순복음교회>

진화론의 잘못된 증거들을 자세히 배우고 또 창조론의 증거들을 배우면서 성경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 김민지 <미안마 한인 연합교회>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진화론이 기독교 인구들을 즐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지금은 친구들에게도 진화론이 틀린 이유를 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창조론이 사실 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박사랑 <양카라 순복음교회>



창조와 하나님의 형상을 모든 믿는 자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전파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멋짐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 이영실 선교사

창조과학 탐사를 통해서 창세기 1장에 대한 성경적 이해를 해결하였습니다. 진화론적 관점에 의해서 창1장을 보다 보며 해석하려고 했던 견해를 해소 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 김바울 <카이로>

창조에 대한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전에도 몇 번 창조과학에 관련된 영상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증거 자료의 부족으로 약간의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탐사여행을 계기로 그 의문점이 많이 풀린 것 같아 기쁩니다. - 김인성 <베트남>

세상적 학문과 그것에 길들여 있는 제가 얼마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위해 수고하셨을 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고 또 무관심 했다는 사실도 저를 부끄럽게 합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거짓 없으신 하나님을 위해 더 열심히 하나님께 집중하고자 합니다. - 오재웅목사, 박정연 사모 <양겔레스 순복음교회>

성경에 대해 그동안 이해만 하던 것들을 눈과 귀로 직접 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진화론에 대한 사실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씀에 힘입어 연구하시는 창조과학자 분들이 존경스럽습니다. - 김진호 <나성 순복음교회>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마음에 성경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크며 그 이유가 진화론에 근거한 교육 때문임을 알았을 때, 창조과학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교회 교육을 점검해 봅니다. - 유학종 목사 <안산 순복음교회>

저는 여기 와서 Grand Canyon 대해 많이 배웠어요. 진화가 진짜 아니라는 것을, 재미 있었어요, 여태까지 속았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친구들에게 전해야겠어요. - 박한나(10살)

2014년

- 9/1-3 창조과학탐사 (얼바인 온누리), 이재만
- 9/3 오렌지카운티 한인교회 (최우성), CA
- 9/4-10 창조과학탐사 (안산 동산교회), 이재만
- 9/7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 9/8-11/10 중부창조과학학교 (시카고 그레이스 교회), IL
- 9/12-17 시애틀형제교회 (이재만), WA
- 9/13 ANC 온누리교회 집중세미나 (최우성), CA
- 9/14 주님의 영광교회 (최우성), CA
- 9/20 ANC 온누리교회 집중세미나 (이재만)
- 9/21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9/22-27 창조과학탐사 (이랑학교), 이재만
- 9/27-28 Tabernacle Campus Church (최우성), NY
- 9/28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CA
- 9/29-10/1 창조과학탐사 (주님의 영광교회), 이재만
- 9/29-10/1 창조과학탐사 (나성순복음 아프리카 선교사), 최우성

---

- 10/2-9 창조과학탐사 (두란노 바이블 칼리지), 이재만
- 10/10-13 덴버 한인장로교회 (이재만), CO
- 10/14 Cerritos Coffee Break (이재만), CA
- 10/17-19 콜롬비아 한인침례교회 (이재만)
- 10/20-25 창조과학탐사 (뉴욕 아름다운교회), 이재만
- 10/28-12/9 Southern Calif. Bible College LA campus (최우성)
- 10/31-12/2 한국 방문 (이재만), 한국

● 보다 자세한 일정은 웹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후원

Sponsorship

창조과학 선교회는 초교파 선교단체로서 여러분의 후원으로만 운영됩니다. 창조과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을 하실 분들은 미국 비영리 단체(Nonprofit Organization)로 등록되어 있는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로 후원금이 입금되도록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홈페이지([www.HisArk.com](http://www.HisArk.com))를 방문하시면 온라인으로 후원이 가능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세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Payable to :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창조과학선교회 Association for Creation Truth**

(한국창조과학회 미주지부)

Mailing Address | P.O. Box 819, Norwalk, CA 90650  
 Office Address | 10529 Leeds St., Norwalk, CA 90650  
 Tel. 562-868-1697 [www.HisArk.com](http://www.HisArk.com) / [hisark@gmail.com](mailto:hisark@gmail.com)